

빨간 고구마, 분홍 복숭아

- 「농촌체험」참가기 -



변애나 시인



▲ 경남 통영 목지섬에서 고구마 캐기 체험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서울시연합회원들은 남쪽으로 부터 오고 있는 가을을 맞이하러 서울을 떠나 남으로 향하였습니다. 희뿌연 서울의 아침 하늘은 나이 때문에 오는 시력 저하 때문이려니 했으나 시골의 청명한 하늘을 보고는 눈 탓이 아니라 너무나 다른 도시와 농촌의 공기 때문임을 알고서 한편으로는 안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떠날 때의 마음보다도 돌아올 때의 마음이 더 흡족한 것은 좋은 여행을 한 까닭이겠지요. 9월

22~23일 1박 2일은 여행이라 할 것도 없이 짧은 시간이지만 잘 계획되고 준비된 농기협 농촌체험 프로그램은 시간의 길이보다도 더 많은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함께 참가한 40여명의 농기협 서울시연합회원 모든 분들이 만족하고 보람을 느낀 도·농협력 프로그램의 실천이었으니까요. 도·농협력 사업의 취지를 모범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서울연합회 홍월표 회장님의 추진력과 지혜로움은 그와 농촌체험을 해 본 분들이면 누구나 느끼는 바이지만 이번 여행에 처음으로 참여하신 회원 분들 역시 동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오매실마을에 도착한 일행은 먼저 청정한 산과 들 그리고 깨끗한 마을의 모습에 순수함과 평화로움을 느끼면서 임영빈 대표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귀농 도시인들의 정착을 위하여 수십 년을 열심히 살아오신 그분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의지의 한국인의 모습이었지요. 청정한 녹음에 둘러싸인 시골집 마당에는 고랭지 채소로 차려놓은 식탁이 우리를 맞이하여 오랜만에 참으로 그림고도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한사발의 막걸리와 거친 걸절이김치는 술뚜껑에서 구워낸 삼겹살과 함께 완벽한 식사였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에 길들여

진 도시인들이지만 그 내면에는 바로 함양 깊은 산속에서 맛본 이런 음식을 찾고 싶어 했으니까요.

‘함양 백전면 오매실마을의 배추가 가장 맛있는 김치를 만듭니다. 반드시 김치가 아닌 금치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직접 드셔 보시고 또 이웃에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랭지 배추 중에서도 최고의 배추가 이 백전면 배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같은 마음으로 의지를 다지는 오매실 농민들의 모습은 보는 이에게 감동을 주었지요. (백전면 농민 파이팅!) 일행은 식사 후 복숭아밭으로 이동하여 복숭아 따기 체험을 했습니다. 분홍빛 복숭아의 달콤한 향기가 과수원에 가득하여 우리들의 손과 입을 바쁘게 재촉하였습니다. 따느라 먹느라 정신없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얼마나 건강해 보였는지요. 과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가득히 피어있는 들국화, 코스모스, 이름 모를 야생화는 왜 그렇게도 아름다운지요. 알밤이 툭툭 떨어지는 길을 그냥 지나가지 못해 신발이 찢어져도 몰라라 하고 밤을 까서 주머니에 가득 채우니 알밤이 가득, 기쁨도 가득 이었습니다. 함양에 아쉬운 인사를 하고 남원으로 가는 길에 코스모스는 줄지어 무리져 피어 발걸음을 붙잡지만 다음 방문지인 남원 사매면 서도리, 가장 풍광이 빼어난 곳에 자리 잡고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혼불 문학관에 이르렀습니다.

작고한 최명희 작가의 유일한 유작 ‘혼불’의 기념관에서 일행은 작가와 작품에 대한 안내인의 해설을 듣고 정자에 올라앉아 부채와 목판에 각자의 기도의 말을 써보는 체험을 하면서 잠시 자신들의 소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진이 전시 되어 있는 ‘혼불 송어리 들뜸터’와 지금은 멈춘 서도역 기차길을 둘러 하룻밤 숙소를 찾아 지리산 ‘인월요업역사관’이 있는 황토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황토욕을 하고 황토옹기에 지리산 산채로 깔끔한 한식을 먹고 하룻밤을 편하게 잘 수 있는 좋은 곳이지요.

이튿날 피곤을 모두 풀고 황토마을의 정말 맛있는 아침을 들고 남원을 떠나와 통영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또다시 가을꽃들이 우리를 붙잡으려 합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옥지면은 통영에서 한 시간 배를 타고 닿는 섬입니다. 삼십 여개의 섬이 쪽빛 바다 위에 떠 있는 남쪽 바다 멀리 여수가 보였습니다.

농협옥지지소 조규봉 지소장님이 통영까지 나와서 우리를 안내해 주셨는데, 소장님은 유머와 패기가 충분히 엿보이는 옥지도의 일꾼으로 100점을 드리고 싶은 분이셨습니다. 버스로 한 바퀴 도는 옥지도의 해안 관광은 정말 근사하였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관광지 못지않은 수려한 경치와 어촌이라기보다는 항구 마을 같아 이국적인 느낌마저 들게 하였지요. 옥지도의 특산물인 빨간 흙 속의 빨간 고구마 캐기 체험도 즐거웠습니다. 한 주먹 따온 고구마줄기로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된장국을 끓여 먹으니 맛이 특별하였습니다. 한 줌 고구마 줄기에 1박2일의 즐거움이 묻어서 인가요.

함양과 옥지도에서 본 우리의 산천초목이 가슴 저리게 고마운 까닭은 그곳에서 살아가고, 그 곳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농민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믿고 의지합니다. 일행 모두 다음 농촌 체험을 약속하고 기대하며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㉟